

LG석유화학, 수익 호조 일시적

동양증권, 석유화학 하락세 2008년까지 지속 ... 공급물량 증가

동양증권증권은 LG석유화학에 대해 3/4분기 이익 강세는 일시적이라며 시장수익률 투자의견과 목표주가 2만2000원을 유지했다.

황규원 애널리스트는 “LG석유화학은 3/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각각 42.5%, 728.4% 급증하며 사상 최고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”며 “그러나 일시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”고 말했다.

황규원 애널리스트는 “2005년부터 시작된 석유화학 사이클 하락세는 2008년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다”며 “추세적 상승과 일시적 회복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”고 조언했다.

아울러 “2006년 4/4분기와 2007년 1/4분기 영업이익 모멘텀이 없다”며 “신규공급 물량 증가로 인해 4/4분기 영업이익은 3/4분기 대비 40%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”고 말했다.

메리츠증권은 LG석유화학의 3/4분기 실적이 기초유분 가격 상승에 힘입어 호조세를 보였으나 4/4분기에는 실적 모멘텀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10월17일 밝혔다.

목표주가 2만4500원은 유지했다.

유영국 애널리스트는 “3/4분기 신증설 설비의 가동지연 등으로 기초유분 가격이 초강세를 보임에 따라 LG석유화학의 영업이익이 92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.1% 늘었다”고 전했다.

유영국 애널리스트는 “그러나 4/4분기 이후에는 계절적 비수기에 진입하는데다 국내 35만톤 증설을 시작으로 2007년 상반기까지 중국과 타이완을 중심으로 신증설이 예정돼 있어 LG석유화학의 실적 모멘텀 둔화가 불가피할 것”이라고 전망했다. (서울=연합뉴스) <저작권자(c)연합뉴스-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6/10/17>